



전문가 인터뷰

Abdel-Hamid Mamdouh
Director of Trade in Services, WTO

소개

WTO 서비스국장 압델 하미드 맘두는 이집트 외교관 출신으로, WTO의 전신인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서비스무역에 일반협정(GATS)의 법적 측면을 마련하는 일을 담당했고, 1995년 WTO의 출범과 더불어 WTO 서비스국에서 일하고 있다.

서비스 부문은 일반상품의 거래와 달리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처음으로 WTO 다자간 무역체제에 편입되었고,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제정 이후 비로소 무역 자유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서비스 협상은 건설, 통신, 해운, 유통, 금융, 시정각, 교육, 법률, 보건 등 12개 분야의 155개 세부업종에 대한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비스는 네 가지 형태(Mode)로 공급되는데, Mode 1(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은 서비스가 통신수단 등을 통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며(환자에 대한 원격진료, 원격교육 등), Mode 2(서비스의 해외소비)는 한 국가의 국민이 다른 국가에 가서 서비스를 소비(이용)하는 것(해외유학, 해외치료, 관광 등)이며, Mode 3(상업적 주재)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한 국가의 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국가의 영토에 주재하는 것(국내 분교, 자회사 설립 등)이고, 마지막 Mode 4(인력이동)는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자연인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것(자회사 임원, 교수, 건설인력 등의 이동 등)을 의미한다.

WTO 회원국들은 각국이 관심 있는 다른 회원국들에게 서비스시장 개방을 요청하는 1차 양허요청서(initial request)를 제출했고(2002년 6월), 각 회원국은 자국의 시장개방계획안인 1차 양허안(initial offer)을 제출하고(2003년 3월), 현재 본격적인 양허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미 제출한 양허안을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DDA 서비스 협상 Mode 4(인력이동)에 대해서는 단순인력을 포함한 인력이동을 요구하는 개도국과 전문인력 중심의 이동을 요구하는 선진국의 이해관계가 대립을 이루고 있는데, 이에 관해 맘두 국장과 e-mail 인터뷰를 나누었다.

Q WTO DDA 협상의 취지와 진행상황을 소개해 주십시오.

A DDA 협상의 취지는 서비스 산업의 무역을 더욱 자율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의 네 가지 형태별로 무역의 제한요인을 감소 또는 제거를 통해 추구하고자 합니다. 서비스 산업의 무역 자율화를 통해 개도국의 국제무역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떠한 서비스 부문을

Abdel-Hamid Mamdouh(Director of Trade in Services, WTO)

사전에 배제하거나 특별대우를 하지 않고, 개도국을 대상으로 수출을 위한 공급방안 마련에 주력하지 않겠다는 회원국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개도국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무역 자율화 시행 시점에 유연성을 두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시장접근 확보와 국가적 대우에 관한 사항이 현 WTO 회원국의 의무사항 협정에 포함될 것입니다.

Q WTO 서비스 협상에서 쟁점 중의 하나인 Mode 4에 대해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ode 4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어떻게 대립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A Mode 4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실질적인 입장 대립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력이동에 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에 차이가 있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DDA 협상에서는 지난 우루과이 라운드와는 달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더 결속력 있는 Mode 4의 협상을 달성하기 위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개도국은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인적자원 확보에 있어 이견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도국과 저개발국은 당연히 단순노동력을 확보하는 데 관심이 있는 반면, 선진국은 경영인, 간부 또는 전문직과 같은 기업의 고급인력 확보에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Q 지난해에 선진국이 제출한 1차 양허안에 대해 개도국들은 실망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점에 대해 실망이 큰것 인지, 그리고 개도국의 선진국에 대한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A 개도국은 Mode 4에 대한 선진국의 양허 범위에 실망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EU측 제안을 제외한 선진국의 양허안은 기업간에 인적 교류, 즉 동일한 기업 내에서 국가간 인력이동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도국측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대부분 회원국간에 양자협상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제3자 또는 WTO 사무국에서는 요구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Q 개도국의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 선진국들이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bdel-Hamid Mamdouh(Director of Trade in Services, WTO)

A 현재 양허 요청된 사항 중에서 결정이 유보된 부분은 없습니다. 양허 요청사항은 항상 국가간 양자협상을 통해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협상내용은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Q 개도국 중에서도 경제발전단계와 인력의 수준에 따라 Mode 4에 대한 입장은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A Mode 4에 대해서 개도국간에도 이견이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주요 관심사항과 분야에 있어 입장 차이가 있듯이, 개도국 중에서도 이견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개도국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자이너와 전문직과 같은 고급인력에 관심이 있는 반면 다른 개도국은 건설공사 인부와 같은 단순노동인력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양허요청서와 양허안 제출을 통한 양자협상(request-offer) 과정에서 반영되며, 입장 차이에 대한 결론도 양자협상에 달려 있습니다.

Q 선진국 내에서도 Mode 4에 대한 initial offer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선진국 입장의 변화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A 선진국 내에서도 Mode 4에 대한 양허안 단계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EC의 양허안 같은 경우 “계약직 서비스 공급자”라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공기업과 연관이 없는 서비스 부문의 독립적인 Mode 4 공급자를 뜻합니다. 선진국의 기타 요구사항의 경우, Mode 4에 새로 추가된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입장은 협상 중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협상은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정된 요구사항과 제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양자협상의 목적은 당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의무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양허안 제출은 시작에 불과하며 협상은 양허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Q Mode 4에 대한 국가간의 입장 차이가 크다는 것은 앞으로의 협상이 순조롭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앞으로의 협상 전망과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 수준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Abdel-Hamid Mamdouh(Director of Trade in Services, WTO)

A 협상은 항상 난관에 부딪히게 되며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진전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상의 진전은 국가간 입장 변화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번 DDA 협상은 선진국과 개도국측의 Mode 4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어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 오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Q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Mode 4의 협상 결과에 매우 민감합니다. 한국의 양허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Mode 4 협상 타결이 한국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A 이 질문은 자칫 가치적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답을 피하겠습니다. 또한 아직 확정 되지 않는 Mode 4에 대한 협상 결과가 구체적으로 한국에 미칠 영향을 추측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